

## 정보소양과 경제윤리의 실태와 경제교육 과제

조병철\* · 남상섭\*\*

### 목 차

- I. 서론
- II. 정보소양능력 실태분석
- III. 경제윤리의식 실태분석
- IV.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지식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사회구성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능력 중의 하나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하고 활용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정보소양(information literacy) 능력이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소양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식정보사회의 이행과 발전과정에서 정보소양능력의 격차에 따른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또는 부문간 정보격차가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및 이용 정도의 차이가 정보 수혜층과 정보 소외층간의

단순한 기술적 격차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데 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격차의 폭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수용의 격차가 기존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결국 정보격차가 고용기회와 소득의 격차를 야기시킨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패자와 빈자에게는 빈곤의 악순환만 초래될 뿐인 것이다.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에 의한 사회구성원들의 양극화현상과 이로 인한 갈등이 우리사회의 통합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 때문에 개인간의 정보격차나 정보소양능력의 차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보격차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이나 부모의 성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연령별로 정보소양의 차이나 정보격차가 나타나는지 문제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경제교육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지식정보사회가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생성이 높은 부가가치의 근원이 되고, 국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외래교수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부교수

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타인에 의해 생성된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도용이 만연한다면 지식과 아이디어를 산출하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미래의 국가 초석이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윤리를 정립시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경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경제윤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 경제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의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 필요한 정보활용능력과 경제윤리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계층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정보 활용 능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윤리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그래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정보화기기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정보활용능력과 정보격차, 경제윤리의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과 경제윤리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경제교육의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학교 경제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의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적 조사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학교경제교육의 방향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려는 데 있다.

## II. 정보소양능력 실태분석

### 2.1. 분석자료와 방법

본고에서 실태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학교경제교육연구팀이 2004년 4월 10일부터 1개월간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6846명을 대상으로 정보소양과 관련된 경제의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아주 유용한 이 분야의 기초자료이다. 설문조사는 2004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는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지역 단위의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초, 중등학교의 학생표집은 2001년 교육통계치를 참고하여 전국의 지역별 학생수 비율에 맞추어 지역별 조사대상수를 설정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는 학생의 거주지역과 학교의 주소지가 상이한 문제가 있어 학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권으로 나누어 표집 하였다. 배부된 8,040명의 설문지 중에서 총 6,846명(초등학교 6학년: 2,164명, 중학교 3학년: 2,016명,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1,533명,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434명, 대학생: 627명)이 회수되었으며, 누락항목이 많은 불성실 응답자 67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은 6,779명이었다.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문항은 리커르트 척도문항과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소양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내용은 경제생활에서의 정보 활용 능력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제윤리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보소양과 관련하여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인터넷의 활용 목적과 활용경험, 정보사회의 경제윤리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과 처벌

에 대한 의견 등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정보소양 관련 경제의식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전체 빈도분석을 실시 후 학교급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허용한 문항의 경우는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혹은 지역에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의 소유 혹은 이용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꾸준히 확인되어 왔다. 즉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자 상품으로서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면서 계층간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도 커져가고 있다. 예컨대, 고소득·고학력의 부모를 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사회적도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등의 인적자본을 여유 있게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사교육에 투자할 여유가

〈표 1〉 표본의 특성

		학교급별					전체
		초등6	중학3	인문고2	실업고2	대학생	
성별	남	1156 (53.5)	1110 (55.1)	739 (48.2)	266 (59.8)	287 (8.1)	3558 (52.5)
	여	1004 (46.5)	905 (44.9)	793 (51.8)	179 (40.2)	340 (54.2)	3221 (47.5)
주거지	대도시	930 (43.7)	954 (48.0)	745 (49.0)	284 (64.1)	380 (60.7)	3293 (49.1)
	중소도시	1043 (49.1)	677 (34.1)	524 (20.5)	99 (22.3)	212 (33.9)	2555 (38.1)
	군 이하	153 (7.2)	357 (18.0)	251 (16.5)	60 (13.5)	34 (5.4)	855 (12.8)
부학력	중졸이하	88 (4.3)	204 (10.3)	191 (12.5)	69 (15.8)	77 (12.4)	629 (9.5)
	고졸이하	756 (37.1)	859 (43.4)	728 (47.6)	241 (8.5)	267 (42.9)	2851 (43.2)
	대졸이하	803 (39.4)	729 (36.8)	507 (33.2)	115 (26.4)	210 (33.7)	2364 (35.8)
	대학원	389 (19.1)	187 (9.4)	102 (6.7)	11 (2.5)	69 (11.1)	758 (11.5)
부직업	전문, 행정, 사무	1060 (51.9)	772 (39.8)	509 (34.3)	108 (26.8)	262 (43.3)	2711 (41.9)
	판매, 서비스	454 (22.2)	518 (26.7)	438 (29.5)	114 (28.3)	188 (31.1)	1712 (26.4)
	생산관련	321 (15.7)	368 (19.0)	301 (20.3)	115 (28.5)	100 (16.5)	1205 (18.6)
	농축임수산	52 (2.5)	141 (7.3)	154 (10.4)	34 (8.4)	31 (7.5)	412 (6.4)
	기타	157 (36.3)	139 (32.1)	81 (18.7)	32 (7.4)	24 (5.5)	433 (6.7)
가구월수입	1백만 미만	241 (11.6)	178 (9.2)	168 (11.2)	112 (26.2)	33 (5.4)	732 (11.2)
	2백만 미만	639 (30.9)	609 (31.4)	497 (33.1)	175 (41.0)	142 (23.1)	2062 (31.4)
	3백만 미만	585 (28.2)	606 (31.2)	467 (31.1)	84 (19.7)	197 (32.0)	1939 (29.6)
	4백만 미만	365 (17.6)	304 (15.7)	241 (16.0)	32 (7.5)	139 (22.6)	1081 (16.5)
	4백만 이상	241 (11.6)	243 (12.5)	130 (8.6)	24 (5.6)	105 (17.0)	743 (11.3)

## 2.2.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보소양능력

가정배경이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에 영향을 주는가? 정보통신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 즉, 소득이나 교육 수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격차가 지식과 기술습득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는 교육수준의 격차로, 다시 인적자본의 격차로 악순환 되는 부의 재생산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 정보소양능력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상관관계

	성	학교급	주거지역	부학력	부직업	소득
상관계수	0.075***	-0.026**	-0.062***	0.094***	-0.076***	0.136***

주: 상관계수 \*\*\*는 0.01 수준(양쪽), \*\*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2>는 학생들의 가정배경이나 인구학적 요인이 정보소양능력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정보소양능력은 정보의 활용성 측면을 나타내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검색, 수집, 정리하는 능력을 5점 척도(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부족 2점, 매우 부족 1점)로 처리하였다. 모든 요인들이 정보소양 능력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등과도 정(+)의 상관관계이지만, 주거(도시와 군 이하)지역과 부의 직업,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대학)과는 부(-)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정보소양능력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고소득가구일수록 정보소양능력 점수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3. 정보소양능력과 정보활용 실태

#### 2.3.1. 컴퓨터활용능력

경제생활에서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개인적 평가, 자신의 인터넷 활용의 주요 목적,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인터넷 활용의 정도 등을 조사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표 3>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검색, 수집,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설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응답분포는 ‘보통’(48.6%), ‘대체로 우수’(30.0%), ‘대체로 부족’(10.4%), ‘매우 우수’(8.6%), ‘매우 부족’(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 학생들의 38.6%는 우수한 것으로, 48.6%는 보통으로, 12.8%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생각을 등급화하여(등급점수가 낮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을 우수)하여 특성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학교급별 변수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등급평균은 2.68로서 전체적으로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65), ‘초등학생’(2.67), ‘인문계 고등학생’(2.69), ‘실업계 고등학생’(2.71), ‘대학생’(2.74)의 순으로

<표 3> 학교급별 컴퓨터 활용능력 등급 분포

등급	초등 6	중학 3	인문고 2	실업고 2	대학생	전체
1급	193( 9.0)	181( 9.0)	117( 7.7)	48(11.0)	37( 5.9)	576( 8.6)
2급	636(29.7)	628(31.4)	468(30.6)	106(24.2)	183(29.3)	2021(30.0)
3급	1049(49.1)	940(47.0)	741(48.5)	225(51.4)	316(50.6)	3271(48.6)
4급	200( 9.4)	207(10.3)	169(11.1)	42( 9.6)	83(13.3)	701(10.4)
5급	60( 2.8)	46( 2.3)	33( 2.2)	17( 3.9)	6( 0.1)	162( 2.4)
평균등급	2.67	2.65	2.69	2.71	2.74	2.68
통계량	$X^2=38.927, df=16, p=0.001$					

주: 등급분류(매우 우수 1급, 우수 2급, 보통 3급, 부족 4급, 매우 부족 5급)

〈표 4〉 특성별 컴퓨터 활용능력 평균등급

		초등 6	중학 3	인문고 2	실업고 2	대학생	합계	통계량
성별	남학생	2.75 (1.144)	2.6055 (.9103)	2.6068 (.8745)	2.7104 (.9790)	2.5490 (.8182)	2.6199 (.9010)	$X^2=78.718$ df=4 p=0.000
	여학생	2.71 (0.818)	2.7148 (.8081)	2.7765 (.8119)	2.7079 (.8330)	2.9027 (.7414)	2.7484 (.8085)	
주거지	대도시	2.61 (0.873)	2.6156 (.8615)	2.6536 (.8584)	2.6835 (.9311)	2.7460 (.7838)	2.6422 (.8623)	$X^2=47.048$ df=8 p=0.000
	중소도시	2.6896 (.8457)	2.5997 (.8763)	2.7088 (.8560)	2.7959 (.9840)	2.7642 (.8210)	2.6803 (.8609)	
	군 이하	2.96 (0.948)	2.8483 (.8150)	2.7649 (.7775)	2.7000 (.7658)	2.5882 (.7434)	2.8244 (.8258)	
수준 (월)	1백만 미만	2.85 (0.92)	2.9153 (1.0049)	2.8810 (.8673)	2.8198 (.8862)	2.5758 (.9364)	2.8548 (.9256)	$X^2=166.873$ df=16 p=0.000
	2백만 미만	2.76 (0.848)	2.7835 (.8463)	2.7636 (.8337)	2.7746 (.9530)	2.7887 (.7974)	2.7717 (.8490)	
	3백만 미만	2.68 (0.840)	2.6352 (.7816)	2.6531 (.8763)	2.5422 (.9147)	2.8163 (.7490)	2.6661 (.8265)	
	4백만 미만	2.52 (0.850)	2.4389 (.8311)	2.5765 (.7906)	2.7097 (.7829)	2.8188 (.7852)	2.5537 (.8286)	
	4백만 이상	2.42 (0.944)	2.4463 (.9550)	2.5769 (.8340)	2.5417 (1.0624)	2.4476 (.7335)	2.4669 (.9068)	
부직업	전문직, 행정관 리직	2.59 (0.863)	2.6052 (.8892)	2.6437 (.8572)	2.5660 (.9052)	2.7280 (.8267)	2.6187 (.8688)	$X^2=58.435$ df=16 p=0.000
	판매직, 서비스직	2.69 (0.827)	2.5891 (.8112)	2.6568 (.8135)	2.8053 (1.0076)	2.7326 (.7572)	2.6651 (.8257)	
	생산 관련직	2.70 (0.921)	2.6997 (.8447)	2.7013 (.8256)	2.6814 (.8991)	2.7600 (.7801)	2.7045 (.8591)	
	농축산 수산업	2.86 (0.959)	2.7929 (.7633)	2.8896 (.8522)	2.8529 (.9577)	2.8387 (.8601)	2.8447 (.8430)	
	기타	2.85 (0.792)	2.7174 (.9436)	2.8889 (.8944)	2.9063 (.7344)	2.7083 (.6903)	2.8112 (.8534)	
부학력	중졸이하	2.87 (0.794)	2.8109 (.9023)	2.7749 (.8746)	2.6812 (.9470)	2.7403 (.7146)	2.7841 (1.2221)	$X^2=73.056$ df=12 p=0.000
	고졸이하	2.77 (0.838)	2.7037 (.8331)	2.7376 (.8400)	2.7029 (.8980)	2.7744 (.8388)	2.7374 (.8417)	
	대졸이하	2.63 (0.856)	2.5972 (.8559)	2.6324 (.8439)	2.7857 (.9437)	2.7033 (.7709)	2.6344 (.8517)	
	대학원 이상	2.48 (0.885)	2.4301 (.9518)	2.5882 (.8004)	2.4000 (.9661)	2.7101 (.8063)	2.5053 (.8870)	
합계		2.67 (0.870)	2.6547 (.8673)	2.6948 (.8466)	2.7094 (.9213)	2.7408 (.7966)	2.6807 (.8603)	$X^2=38.927$ df=16. p=0.001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는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2.62로 여학생의 경우 2.75보다 낮아 다소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도시(2.64), 중소도시(2.68), 군 이하(2.82) 순서로 규모가 큰

도시에서 거주할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대도시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학교급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 다소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중학생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대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군 이하에서는 대학생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군 이하를 비교해 볼 때 대도시에서는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군 이하에서는 학교급별이 높은 학생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 이하에서는 유소년층의 정보화에 있어 대도시보다 정보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4백만원 이상일 때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행정관리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판매직 및 서비스직, 생산관련직, 농축산·수산업의 순이었다. 부의 학력에서도 대학원 이상일 때가 가장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하고, 고학력일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대도시에 거주하고 소득이 많고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거주지, 소득, 직업, 학력 등에 의해 정보격차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2.3.2. 인터넷 활용목적

정보이용집단을 McQuail(1989)의 분류처럼 정보형, 사회교류형, 자아도취형, 오락도피형으로 분류하면, 자료나 정보를 검색하는 분류인 정보형에 속하는 일부만 정보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인터넷을 오락이나 익명의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인터넷의 사용은 대인적 신뢰, 삶에 대한 만족도, 공공생활에의 참여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경제적인 부의 축적과 함께 사회적인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강홍렬 외, 2002 : 99)는 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현재 인터넷 접속과 활용목적 차이에 따라 향후 정보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5>는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지에 대한 다중응답설문의 빈도분석결과이다. 학생들은 '자료·정보검색'(27.4%), '게임·오락'(25.3%), '채팅·메신저'(20.4%), '동호인 모임'(12.4%), '전자우편'(9.1%), '전자상거래'(3.3%), '불건전 사이트 이용'(2.0%)의 순으로 인터넷을

<표 5> 학교급별 인터넷 활용 목적 분포(중복응답)

	초등 6	중학 3	인문고 2	실업고 2	대학생	전체
자료·정보검색	1037 (24.7)	960 (24.3)	912 (30.0)	200 (23.6)	530 (42.4)	3639 (27.4)
전자우편	535 (12.7)	253 (6.4)	171 (5.6)	50 (5.9)	206 (16.5)	1215 (9.1)
게임·오락	1311 (31.2)	1092 (27.6)	572 (18.8)	248 (29.3)	147 (11.8)	3370 (25.3)
채팅·메신저	737 (17.5)	932 (23.6)	715 (23.5)	193 (22.8)	134 (10.7)	2711 (20.4)
전자상거래	38 (0.9)	130 (3.3)	166 (5.5)	40 (4.7)	68 (5.4)	442 (3.3)
동호인모임	515 (12.3)	480 (12.1)	418 (13.7)	80 (9.5)	158 (12.7)	1651 (12.4)
불건전사이트	31 (0.7)	108 (2.7)	88 (2.9)	35 (4.1)	6 (0.5)	268 (2.0)
합계	4204(100)	3955(100)	3042(100)	846(100)	1249(100)	13296(100)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학교급별 변인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활용 목적”에 대해 ‘게임이나 오락’(36.7%), ‘자료나 정보검색’(26.6%), ‘채팅이나 메신저’(16.5%)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료와 정보검색’(28.3%), ‘채팅이나 메신저’(24.6%), ‘동호인 모임’(17.2%), ‘게임이나 오락’(12.9%)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목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학교급별로는 인터넷을 ‘초등학생’(31.2%), ‘중학생’(27.6%), ‘실업계 고등학생’(29.3%)은 ‘게임이나 오락’에 1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30.0%)과 ‘대학생’(42.4%)은 ‘자료나 정보검색’에 1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3. 특성별 전자상거래 경험**

<표 6>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한 경제활동의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학생들의 55.1% 정도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물건의

구입, 저축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별 집단간에는 전자상거래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경제활동을 경험한 비율을 성별 및 학교급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성별로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의 경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경우가 58%로 남학생의 경우 53%보다 비율이 높아 인터넷이나 핸드폰 활용 경제활동의 경험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학교급별로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경제활동을 한 경험의 비율이 ‘대학생’(87%), ‘인문계 고등학생’(69%), ‘실업계 고등학생’과 ‘중학생’(57%), ‘초등학생’(34%)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별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대학교 여학생’(89%)이 가장 높았다.

<표 7>의 결과는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전자상거래의 경험 비율을 나타낸다. 고소득일수록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의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학교급별 전자상거래 경험 비율

	초등6	중등3	인문고2	실고2	대학생	전체
남학생	34% (1143)	53% (1102)	67% (738)	56% (259)	84% (286)	53% (3528)
여학생	33% (999)	61% (900)	72% (793)	58% (179)	89% (340)	58% (3211)
전체	34% (2142)	57% (2002)	69% (1531)	57% (438)	87% (626)	55% (6739)

주: 괄호안 빈도

<표 7>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전자상거래 경험 비율 (단위 : %)

소득수준	초등 6	중학 3	인문고 2	실업고 2	대학생	전체
100만원 미만	23	46	58	58	76	44
200만원 미만	29	53	68	54	85	52
300만원 미만	35	57	72	63	89	57
400만원 미만	40	62	74	68	89	61
400만원 이상	43	69	75	50	86	63
합 계	34	57	70	58	87	55

주거지별로는 군 이하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의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별로는 농축산·수산업직과 생산관련직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의 경험이 다소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 행정관리직과 기타 직종에서 경험이 가장 낮은 직업은 판매직과 서비스직이었다. 부의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졸이하에서도 비교적 경험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와 대졸 이하의 학력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의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경제교육연구팀, 2004, 1차 보고서).

적재산권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때문에 학생들의 경제윤리의식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험과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개인적 평가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표 8>은 “유료게임이나 CD를 무단복제하거나 복사한 CD의 사용경험 정도”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경험이 없다’가 48.2%로 가장 높고, ‘1-5회 정도’가 33.5%로 그 다음 순이다. 따라서 전체 학생 중 약 51.8%가 게임이나 CD를 무단복제하거나 복사한 CD를 사용한 적이 있고, 약 10.4% 정도는 16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학교급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없다’가 38.7%, 여학생의 경우에는 58.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CD를 복사하거나 복사한 CD를 사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급별이 올라감에 따라 CD를 복사하거나 복사한 CD를 사용한 경험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9>는 무단으로 복제한 게임이나 CD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 III. 경제윤리의식 실태분석

#### 3.1.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과 의식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생활의 윤리문제는 지

<표 8> 학교급별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

	초등 6	중학 3	인문고 2	실업고 2	대학생	전체
없다	1477(71.4)	872(44.6)	479(32.2)	178(42.1)	147(24.0)	3153(48.2)
1-5회	471(22.8)	718(36.8)	567(38.1)	163(38.5)	273(44.5)	2192(33.5)
6-10회	49( 2.4)	125( 6.4)	130(8.7)	25( 5.9)	63(10.3)	392( 6.0)
11-15회	20( 1.0)	39( 2.0)	48( 3.2)	6( 1.4)	18( 2.9)	131( 2.0)
16회 이상	53( 2.6)	199(10.2)	265(17.8)	51(12.1)	112(18.3)	680(10.4)
통계량	$\chi^2=853.211, df=16, p=0.000$					

<표 9>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과 위법행위 의식 여부

	초등 6	중학 3	인문고 2	실업고 2	대학생	전체
의식 없음	299(70.4)	648(83.4)	653(86.7)	166(88.8)	288(81.1)	1,755(82.3)
의식 있음	126(29.6)	129(16.6)	100(13.3)	21(11.2)	67(18.9)	443(17.7)
전체	425(100.0)	777(100.0)	753(100.0)	187(100.0)	355(100.0)	2,198(100.0)

을 의식했는지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위법행위임을 알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몰래 이용했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2.3%의 대다수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단 복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차후 학교경제교육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 진다.

### 3.2. 경제윤리수준과 정보소양능력

<표 10>은 지적재산권 침해 처벌제도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처벌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물음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처벌이 필요하다’(52.0%),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22.8%), ‘처벌은 필요하지 않다’(11.8%), ‘직접적 절도행위는 아니므로 처벌은 너무 심하다’(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중 약 74.8%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학

교급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는 여학생의 경우가 76.9%로 남학생의 73.0%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처벌해야 한다는 비율이 ‘대학생’(83.4%), ‘초등학생’(80.7%), ‘중학생’(71.0%), ‘인문계 고등학교’(70.7%), ‘실업계 고등학교’(65.2%)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제외하면 학교급별이 높아질수록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표 10의 윤리의식평균 점수 참조). 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적절한 경제교육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경제윤리의식을 점수화하여 측정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문 중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처벌제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는 설문 응답을 윤리의식의 강도에 따라 점수화한 것이다. 즉 설문문항 중에 ‘무단 복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찬성으로 응답한 학생이 강한 경제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5점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처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소극적인 찬성으

<표 10>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문제

		강한 반대	약한 반대	약한 찬성	강한 찬성	전체	윤리의식 평균점수
성별	남학생	406(11.8)	522(15.2)	1674(48.6)	842(24.4)	3444(100)	3.59(1.32)
	여학생	371(11.8)	357(11.4)	1757(55.9)	659(21.0)	3144(100)	3.63(1.26)
	전체	777(11.8)	879(13.3)	3431(52.1)	1501(22.8)	6588(100)	3.61(1.29)
학교급별	초등6	199(9.4)	208(9.9)	980(46.5)	722(34.2)	2109(100)	3.86(1.25)
	중학3	258(13.1)	311(15.9)	983(50.1)	410(20.9)	1962(100)	3.50(1.33)
	인문고2	218(14.8)	214(14.5)	839(56.8)	206(13.9)	1477(100)	3.41(1.30)
	실업고2	70(16.4)	79(18.5)	199(46.5)	80(18.7)	428(100)	3.33(1.39)
	대학생	31(5.1)	70(11.6)	422(69.8)	82(13.6)	605(100)	3.75(0.99)
	전체	776(1.8)	882(13.4)	3423(52.0)	1500(22.8)	6581(100)	3.61(1.29)

주: 집단평균차이 검정(성별 카이제곱 43.297, 학교급별 카이제곱 354.088)

모두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함.

로 응답한 경우에 4점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므로 복제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처벌을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응답을 한 경우에 경제윤리의식이 약하다고 보고 2점을, 그 다음으로 '처벌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응답한 경우 경제윤리의식이 아주 약하다고 보고 1점을 주는 방법으로 점수화하였다.

〈표 11〉 경제윤리의식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관계

	성별	학년	주거지역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가구소득	정보소양
Pearson 상관계수	0.016	-0.059***	0.010	0.025**	0.021*	-0.010	0.004	-0.031**
유의확률 (양쪽)	0.200	0.000	0.408	0.047	0.086	0.441	0.775	0.011

주: 상관계수 \*\*\*는 0.01 수준(양쪽), \*\*는 0.05 수준(양쪽), \*는 0.1에서 유의함.

〈표 11〉은 학생들의 경제윤리의식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제윤리수준은 학년과 정보소양능력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경제윤리수준은 부모의 학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가구소득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윤리의식수준이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기 때문에 정보소양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제윤리의식이 오히려 낮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별도의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상관관계와 요인을 분석하면 흥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V. 요약 및 정책적 함의

학교 경제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의 지식기

반경제상황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능력 및 윤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과 논의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정보소양능력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요인들이 정보소양능력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등과도 정(+)의 상관관계이지만, 주거(도시와

군 이하)지역과 부모의 직업,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컴퓨터 활용능력과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의 38.6%는 우수한 것으로, 49.6%는 보통으로, 12.8%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을 제외하면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소양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도시에 거주하고 소득이 많고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식하는데, 이것은 곧 거주지, 소득, 직업, 학력 등에 의해 정보격차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하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남학생은 게임이나 오락이 1순위이고, 여학생은 자료나 정보검색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터넷활용목적에 따라 향후 정보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격차와도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학교급별이 높아질수록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물건의 구입이나 결제(63.0%), 인터넷 서비스 구입(20.9%)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앞으로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다양한 결제수단의 개발과 함께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전한 소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불법 CD 사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급별에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급별이 올라감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차후 학교경제교육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 진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적절한 경제교육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대규모의 학생의식조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 경제윤리교육이 정보화의 역기능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므로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홍렬, 차남경, 강상현, 김은미,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 「연구보고서 02-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김문조, 김종길,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36집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02.
- 김옥순, “학교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윤리”, 「에듀넷」, 11월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 남상섭, 조병철,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창업정보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2.
- 학교경제교육연구팀,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위한 학교 경제 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제1차 연도 중간 보고서(2)」, 한국교원대학교, 2004.
- 한국정보문화센터,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학생·교원의 정보 소양”, 「월간지 정보화로 가는 길」, 1998년 12월호.
- Foster, S. Paul, The digital divide: Some reflection,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 Rev.*, Vol.32, 2000, pp.437~451.
- NTIA, *Falling through the Net III: Defining the digital divide*, Washington, DC: US Dep. Commerce, 1999.
- McClure, Charles R., Network literacy: A role for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Vol.13 No.2, 1994, pp.115~125
- McQuail, Denis,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2nd edn.), London: Sage, 1987.

---

OECD, *Bridging the digital divide: Issues and policies in OECD countries*, DSTI/ICCP (2001)9/FINAL, 2001.

## A Survey Research on the Economic Ethics and Information Literacy

Byung-Cheul, Cho\* · Sang-Seob, Nam\*

### Abstract

The topic of this study is a survey research about the economic recognition related to economic ethics and information literacy of students(6,779) extend from elementary school to university. First, for the ability to use computers, it is recognizing that 49.6% of students are normal, 38.6% are superior, and 12.8% are inferior. In part of class, it tends to recognize that it is the superior as the level of school is the lower excepting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we can find great difference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related to purpose of using internet, 79.8% of male students are using computer to play game or entertainment(1), search data or knowledge(2), chatting or messenger(3), 70.1% of female students are using internet to search data or knowledge(1), chatting or messenger(2) and meeting of similar taste. Third, it shows a tendency that the economic activity using internet or cell-phone increases faster as the level of schools is higher. In detail, they primarily use buying or settlement of products(63%), purchasing internet service(20.9%). Fourth, for using illegal CD, not only they didn't feel guilty in all levels of schools, excepting university students, it is showed that the trust of intellectual poverty right is weaker as the level of schools is higher. So, it is becoming serious problems. It seems a task which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economic education of schools in the future.

Key Words: information literacy, economic ethic, economic education

---

\*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nd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Joongbu University

